

특별기고



정 기 연
주필

떠날 때는 뒤 돌아보고 또 돌아보자

엇을 하는가의 업무적 인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며 고향에 머물기도 하지만, 타지방으로 타국으로 옮겨 다니며 산다. 시간적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직선 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생의 위치가 되겠으며, 업무적 인생이란 장소적 시간적 인생이 어느 곳에서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하며 사는가의 삶이다.

인생의 삶은 연속되는 장소 시간 업무와의 만남과 떠남 속에서 산다. 새들은 앉았다 떠날 때는 앉았던 곳의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정리를 잘한 후 떠나며 떠난 후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한다. 머물고 있던 곳에 피해를 주지 않고 남기고 빠진 것이 없이 앞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가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챙기는 것이 있다. 열쇠, 돈과 증명서 등 지갑, 휴대전화기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챙길 것을 빠뜨렸을 때는 되돌아와 챙기고 가야 한다. 우리가 기차나 자동차 비행기를 탔을 때 종착지에 가면 안내방송으로 앉은 자리에 빠진 것이 없나 잘 살펴보고 떠나란 방송을 한다. 무엇인가 빠뜨려 놓고 떠난 후 후회해도 소용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인생이 후회 없이 살려면 시간상으로는 과거를, 장소적으로는 현재 머무는 곳을 다

시 한번 살펴보고 또 돌아보고 떠나야 하는 것이 습관화돼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 차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뒤 돌아보고 빠진 것이 없어야 하며 직장을 옮길 때는 인적 물적 주변 정리를 잘하고 나 때문에 생긴 쓰레기는 치우고 내 것은 챙겨 떠나야 한다. 한번 머물렀던 곳은 미련 없이 버려야 하며 뒤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인생 선배들의 충고다.

앞으로 나갈 때는 앞을 가까이도 보지만, 멀리 봐야 하는 것을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주행할 때 주의 사항으로 가르치고 있다. 현재는 가진 자이지만, 먼 훗날을 보면 못 가진 자가 될 수도 있고, 현재는 어렵고 안 되는 일도 멀리 보면 성공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일을 시작할 때는 멀리 끝을 보며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꾸준히 성실히 실천하며 가야 한다. 인생을 멀리 보면 끝점은 너나 나나 죽음이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인생을 멀리 보려면 나보다 연상인 자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나이의 나를 예측해 보면서 오늘의 시점에서 준비하고 앞을 멀리 보는 삶이 돼야 한다. 인생 나그네는 머물렀던 곳에서 떠날 때는 다음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치우고 빠진 것이 있나 챙기는데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하며, 앞은 멀리 보고 뒤돌아보지 말며 힘차게 전진하자.

인생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으나 가진 자가 되려는 부단한 욕구는 성공으로 욕구를 충족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지만, 그 소유가 종말에는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다 간다.

남기고 간 것이 유산이며 그 유산은 물적 재산과 지식기능 정보의 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의 유산이 멀리 보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며 대책을 세워 정리해야 한다. 물적 유산인 돈과 재산이 내 인생의 종말에 누구의 소유가 되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생각해 미리 유서로서 상속자를 정해야 한다.

무형의 재산인 지식정보기능은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의 종말과 동시에 소멸하므로 죽기 전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 전해주어야 한다. 인생을 멀리 보면 끝점은 너나 나나 죽음이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보람 있는 삶이란 많이 가진 자가 되는 즐거움에서 살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면서 보람 느끼며 살고, 인생의 삶을 마친 후 내세의 준비까지도 하면서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어울려 사는 것이다.

인생 나그네는 머물렀던 곳에서 떠날 때는 다음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치우고 빠진 것이 있나 챙기는 데 뒤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하며, 앞은 멀리 보고 뒤돌아보지 말며 힘차게 전진하자.

독자기고

농부에게서 배우는 재무관리

강 태 희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물가 상승과 경제 불안이 현대 사회에서 증가함에 따라 재테크와 금융 계획은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주제로 부각 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큰 손실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더 많이 들리는 시대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부'라는 고사성어가 투자와 재무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 고사성어는 농부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농사 지을 종자만은 꼭 보관한다는 뜻으로 재테크와 금융 계획을 고려할 때 종자돈 모으기와 절약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

우선, 종자돈 모으기는 재테크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살펴보자. 농부가 수확을 원하면 먼저 씨앗을 심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금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관리함에 있어 핵심은 절약이다. 지출을 줄이고 저축 습관을 기르는 것은

미래를 위한 자본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을 하면,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은 농부가 작은 씨앗을 묻어 수확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저축한 자금은 미래에 투자해 증식시킬 수 있다. 투자를 통해 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투자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쌀 한톨을 생산하기 위해 88번의 땀과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처럼 투자에 대한 철저한 공부와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금융 전략을 통해 '농부'가 아닌 '재테크'로 거듭나야 한다. '농부'의 교훈을 따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금융적인 안정과 성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농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이를 실천하면,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자신의 재무 상태를 안정시키고 번영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부자가 되겠다고 조급해 하는 사람들이 농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금융 목표를 향해 한발자국씩 나아가기를 바래 본다.

함께해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기영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사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